

통일 칼럼

한중 관계 복원과 북핵 문제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한중 관계 복원뿐 아니라 북한 문제 해결도 주요 과제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 양국 간 온도 차도 드러났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볼 때이다. 2017년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한국 정상급 국빈 방문이다. 예포가 천안문 광장에 발사되고, 양 정상은 나란히 의장대를 사열했다.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한중 정상은, 약 90분간 회담을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한중 양국은 더욱 자주 왕래하고 부지런히 소통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2016년 7월 사드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우호적 분위기로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정복구
논설위원

서해 잠정수역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구조물 문제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서해 경제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 개최를 노력하기로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문제와 한중 관계 복원이나 분위기 개선, 등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입장에서 북한 문제 즉,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중 간 명확한 합의가 들어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한국의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이번 회담에선 북핵 문제를 다루는 '한반도 또는 북한 비핵화'가 양국 정상의 공개적인 발언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중국 측 정상회담 발표문에선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중이 논의했다는 표현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가 거론되지 않았는데,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이어진 것이다.

대신, 한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과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

로 했다.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의 통로가 모두 막혀 있으니 중국에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시 주석은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지정학적 의미가 커진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미중 대립 격화와 중일 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에 균형 잡힌 역할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도 향후 풀어야 할 외교적 숙제로 꼽힌다.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는데, 타이완 문제 등에 있어 중국에 적대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중 견제, 대중 압박에 동참하는 것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14년 정상회담 이후 12년째 공동성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설

어느 기업의 역대 성과급 풍경

최근 총복 청구 흥덕구의 SK하이닉스 청구3캠퍼스 정문 앞. 직원들이 오가는 횡단보도 위로 '성과급 투자 전략'을 알리는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다.

직원 1인당 평균 1억4,0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자 이를 유지하려는 뱅커(은행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일부 은행은 SK하이닉스 직원을 대상으로 절세 전략 세미나까지 열었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47조2,069억원. 노사 합의에 따라 이 중 10%가 성과급으로 지급(당해지급 80%, 이연지급 20%)된다. 올해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률은 296.4%에 달했다.

특히 청구는 SK하이닉스의 핵심 거점이다. 현재 M11, M12, M15 반도체 팹(공장)을 운영 중이고, HBM(고대역폭메모리) 전

용 라인이 구축된 M15X는 올해 하반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청구 상주 직원만 1만명 가량으로 파악된다.

소비 변화는 자동차 시장에서 먼저 감지된다. 지난 1월 청구 지역 수입차 등록은 21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늘었다. 신규 등록 수입차의 43%는 SK하이닉스 캠퍼스가 위치한 흥덕구에 집중됐다. 인근 제네시스 청구전시장도 바빠졌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이 전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청구 흥덕구의 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0.164%, 0.135% 상승했다. 총복은 물론 수도권권을 포함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이달에는 서울 강동구·중구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서울 대학가 주거비용

서울 집값 보증금은 1억원이 넘는 원룸 전세 매물이 있다. 2월은 미리 이사를 계획한 재학생 수요보다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 집값을 구하려 오는 시기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부터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까지 다세대주택 매물이 아직 남아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월세가 비싼 대학가로는 이화여대가 꼽혔다. 이화여대 인근의 월세는 79만원이었다. 최근 이화여대 인근 오피스텔은 좋은 입지의 신축일 경우 10평 내외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화여대에 이어 경희대(73만원), 성균관대(70만원), 한국외대(69만원), 고려대(69만원), 연세대(67만원) 등이 월세가 비싼 대학가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보니 일부 학생은 혼자 사는 대신 세어하우스나 학교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집을 구하는 경향도 있다. 대학생 이모(24)씨는 "통학에만 왕복 4시간이 걸려서 세어하우스를 구했다"며 "50만원대 월세로 1인실 방에 거실과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지만 원룸을 구하는 것보다 싸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방구하기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의 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5만7,762명으로 전년(5만2,819명)보다 9.4% 늘었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되면서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현상이 자연스러워진 점도 대학가 인근의 주거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독자제언

새 학기, 설레는 등굣길 완성하는 것은 '안전'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2026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문 앞을 활기찬 인사와 함께 키시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로 등교하는 학생이 눈에 띄네요. 하지만 새로운 시도의 실천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안전'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픽시 자전거: '뱃'보다 중요한 건 멈추는 능력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픽시 자전거는 단순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뒷바퀴를 고정해 멈추는 '스키딩'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픽시는 브레이크 없는게 간지"라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돌발 상황에서 확실한 제동을 위해 반드시 양쪽 브레이크

를 장착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성'

새 학기 친구와 함께 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게 중심이 흔들리면 작은 턱에도 크게 넘어질 수 있어 전동 킥보드 2인 탑승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1인만 탑승하는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변히 없는 전동킥보드 운행은 일련된 분법이며 사고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설레는 새 학기, 사고로 소중한 일상을 잃지 않도록 기본을 지킵시다. 나를 보호하는 안전과 브레이크가 가장 멋진 등교 아이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완주경찰서 심리피출소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 대사관 앞에서 구호 외치는 전쟁 반대 시위대



지난 8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주재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미·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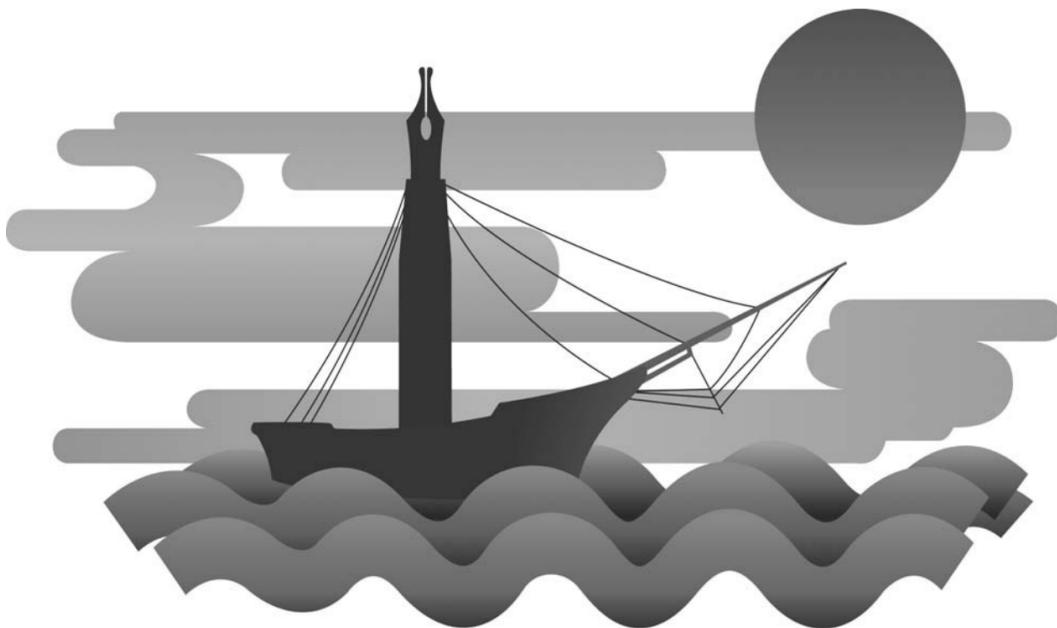
사내·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